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用功怎樣下手呢
용공중앙하수니
楞嚴會上 楞神那尊者說客塵二字
능엄회상 교진나존자설객진이자
正是我門 初心用功下手處
정시야문 초심용공하수처
他處 譬如如客 投宿旅亭 或宿或食
타승 譬如如客 투숙여행 옥숙옥식
飢寒 宿食 宿食 宿食 宿食 宿食
거침 숙식 숙식 숙식 숙식 숙식
宿食主人 自無住
숙식주인 자무유왕
약실주인 자무유왕

공부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능엄회상에서 교진나 존자가 객·진
두자에 대해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들 초심자가 공부를 시작할
자리이다.
그가 설명했다. 비유컨대 길손이 여인
숙에 들어 잠자거나 먹거나 하는데 자
고 먹는 일을 마치면 한가하게 놀러왔
지 않고 행장을 꾸러 길을 떠나지만
주인이려면 갈 곳이 없는 것과 같다.

如是思惟 不生名客 住明主人
여시사유 부주명객 주명주인
以不住者 名爲客義
이부주자 명위객의
又如禪室 滄海升天 光明中 發願空中
우여신제 청양승천 광명중 발원공중

“먼저 주인과 손님을 명확히 인식하면
망상은 제 스스로 장애가 되지 못한다”

諸有塵相 塵質流動 虛空寂然
제유진상 진질요동 허공적연

이렇게 생각하면 머물지 않는게 객이
요 머무는 건 주인이니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 할 것이다.
또 비가 개이고 별이 평평하여 햇빛
이 들므로 들어오면 허공의 온갖 티끌
이 드러나는데 티끌은 움직이고 허공은
고요하다.

澄寂名空 搖動名塵 以搖動者 名爲塵義
징적명공 요동명진 이요동자 명위진의
客塵喻妄想 主空喻自性
객진유망상 주공유자성
常住的主人 本不跟客人 或來或往
상주적주인 본불근객인 혹래혹주
喻常住的自性 本不隨妄想 忽生忽滅
유상주적자성 본불수망상 혹생혹멸
所謂 但自無心于萬物 何放萬物
소위 단자무심우만물 하방만물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요 움직이는
것은 티끌이라
움직이는 것을 티끌이라 한다라고.
(위의 말씀에서) 손님과 티끌은 망상

에 비유한 것이요 주인과 허공은 자성
에 비유한 것이다.
상주하는 주인은 손님이 오거나 간
에 본래 객을 뒤따르지 않으니
이는 상주적 자성이 본래 흠연히 생
겼다가 흠연히 사라지는 망상을 좇지
않음에 비유한 것이다.

常寂然 塵質自搖動 本不著澄寂的
상위요 진질자요동 본에불착징적적
虛空
허공
喻妄想自生滅 本不著如如不動的
유망상자생멸 본에불착여부동적
自性
자성
所謂 一心不生 萬法無咎
소위 일심불생 만법무구
此中 客字教祖 塵字教祖
차중 객자교조 진자교제
初心人 先認清了 主和客 自不爲妄想塵流
초심인 선인청료 주화객 자불위망상진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티끌은 항상
절로 요동하여 본래는 맑고 고요한 허
공에 장애가 되지 않나니
이는 망상이 절로 생겼다 사라졌다하
도 본래 여여 부동한 자성에 걸림이 되

지 않음에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허물될게 없다 한 것이다.
이 두자 중에서도 객이란것은 비교적
거친 것이고 진이라는 것은 비교적 미
세한 것이다
초심자가 먼저 주인과 손님을 명확히
인식하면 스스로 망상을 따라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進法明白了 空和塵 妄想自不能爲碍
진법명백료 공화진 망상자불능위애
所謂 識得而不爲因果 能於此諦審諦會
소위 식득불위인과 능어차체심령회
用功之道 思過半了
용공지도 사과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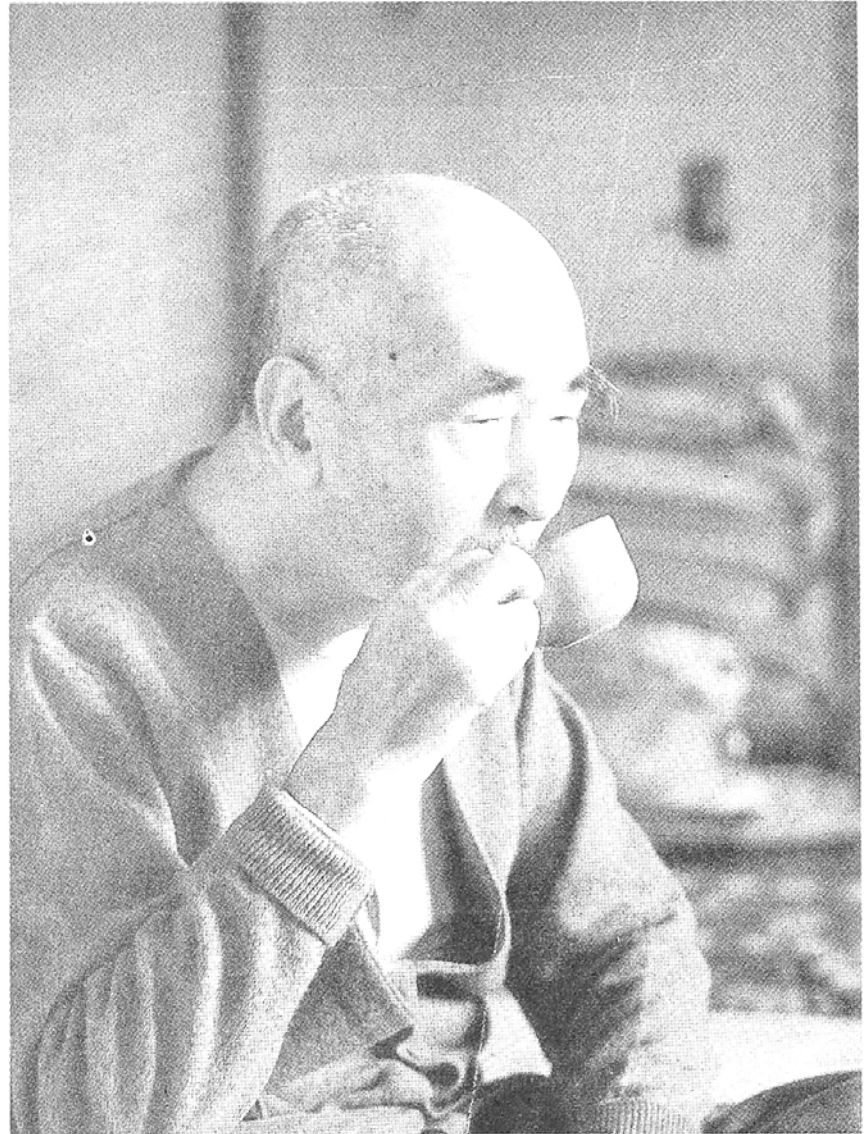
나아가 허공과 티끌을 명백히 안다면
망상은 제 스스로 장애가 되지 못할 것
이다.
이는 이른바 '알게 되면 원통한 과위
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능히 이 도
리에 깊이 다다르면 공부 같은 반쯤 이
룬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龍眼

10월은 문화의 달

“노력 쌓이면 눈 떠지니

만봉스님
홍원사주석



약력
· 1909년 서울 생
· 16년 봉원사로
출가
· 예운화상에게
단청사사
· 24년 불교전문강
원 수료
· 72년 중요유형문
화재 48호 단청
장 기능보유자
지정
· 전국 유명 사암
의 단청조성및
복원과 문화조성
하며 추진 양성

나는 여섯살에 여기 봉원사로 들어왔습
니다. 그 나이에 불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을
했음리는 만무하고 그저 집에 가 오래살
수 있다는 집장이의 말에 따른 것이라 합
니다. 5대 독자인 내가 나이 여섯에 집에
들어와야 하는 일이 어디 쉬운 것이었습
니까. 그리고보면 이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
두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부
모님의 망설임 끝에 들어 온 봉원사에서
나는 여덟살때 예운(雲云)스님의 제자가
되어 단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역시
지금 생각하면 이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인연이보다 전생 인연을 이어가는 길을
그 어린 나이에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습
니다.

그리고 10년을 정말 어렵게 공부했습
니다. 그 10년간 9천여장의 그림을 그려야
했으니깐요. 그 9천장의 그림이란 심왕초(十
王草) 천왕초(天王草) 여래초(如來草)를 3
천장 이상씩 그리는 초보단계에 불과합니
다. 이 단계를 다 마치는데 10년이란 시간
이 걸리는 것이고 이걸 다 마쳐야 비로소
금어(金魚)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어가 되어야 10여 단계로 진행되는 단청
일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나도 10년간 9천
여장의 초를 그리고 금어라는 호칭을 받았

부처님 일을 하는데
감히 요령을 부리고
대가를 바라고
부실할 수 있을까요

는데 스승께서는 바로 지휘할 권한을 주지
않고 2년을 더 수련한 후에 비로소 금어의
일을 맡기더군요.

대개 단청을 배우는다는 단청에 앞서 불
화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 도상을 긴시간
수련하고 나면 필선에 대한 눈이 떠지고
색을 보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청이나 불화 그리는 일이 틀이 아니라
겁니다. 수련년의 초를 그리고 그 필력을
스스로 자재롭게 다스리는 경지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이라 여기며 하는 것도 아
니란 겁니다. 이것은 단청에만 속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도 꼭 들어
맞는 이치입니다.

우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덟살부터 10년
간 9천여장의 초를 그린 것이 바로 그것입
니다. 처음에 비교적 단순한 시왕초를 그
리고 다음엔 좀더 복잡한 여래초를 그리며 필
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이론으
로 될 일입니까. 스스로의 노력 속에서 스
스로 떠지는 눈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어린나이에 더러 괴도 생기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래도 그
일에 왠지 마음이 끌려 견디다 보니 10년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은 나에게 색과 선
을 보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책을 봐가며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
입니다. 세상 사는 일도 이와 같게 많습
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
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교과서에 실릴 필요조차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
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패륜아가 나옵
니까. 이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
요. 그저 당연한 일일뿐인 효도를 몸에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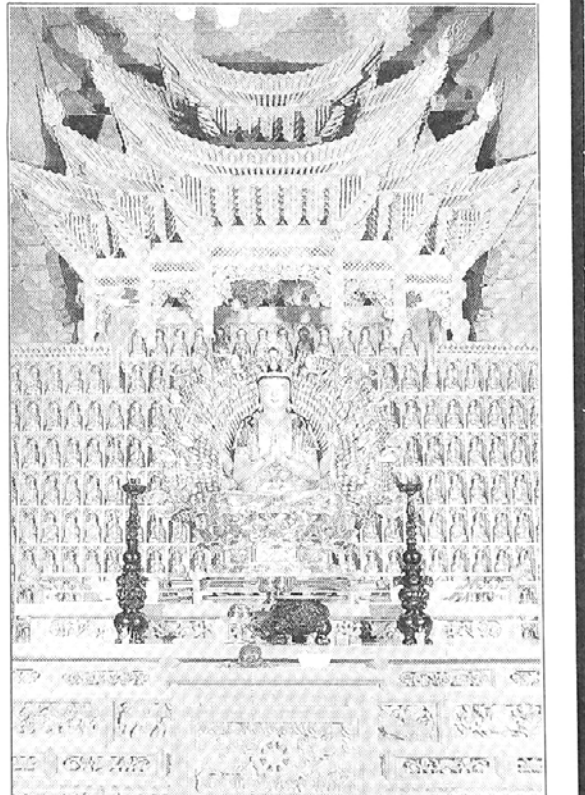
히는 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어려서 심부를
잘하고 부모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자라
서 자신의 일을 잘해 부모를 기쁘게 해드
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하는 일
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옳으면 다 효도입
니다.

학교에서도 효도를 이론으로 가르치려
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실천을 가르쳐야 하
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다는 이론
을 말할 필요도 없이 꾸준한 실천만 있으
면 될 것이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지
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은 돈 같
은 재물의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의 계산이 앞서서도 안됩니다. 모

든 불사가 시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
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한 불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까요.
부처님의 회상을 그리고 당우를 장엄하
는 데 재물의 계산이 앞서면 이미 그 일은 망
친 것입니다. 색이 잘 나옴이 없고 선이 험
차고 골고 부드러울 리가 없습니다. 지극한
신앙심과 번뇌가 사라진 정경한 마음에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란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어디까지하고 내일 얼마나 하고
하는 것마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고 그대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
히려 그 시간표에 쫓겨 일을 망칠 뿐입니
다. 힘이 나면 며칠씩 밤을 새우며 그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대표 이진형 합장
■ 사 무 실 (02) 738-8447~8
■ 공 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